

#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 FOR AUTUMN

vol.134

## 그렇게 풍경은 요란하지 않게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속도가 전해집니다. 계절이 그려놓은 풍경화는 바로 눈앞으로 펼쳐지고, 시원한 가을바람은 얼굴을 스치고, 코끝을 간질이네요. 자전거 타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입니다. 굳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는 내내 지나온 모든 풍경이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글 편집부



# CONTENTS

2 찰나의 계절      그렇게 풍경은 요란하지 않게

## SPECIAL THEME, 한 달 살기

- 6 SPECIAL THEME 01      도시는 나를 품어주었다
- 8 SPECIAL THEME 02      노아와 로이 가족의 발리 한 달 살기
- 12 SPECIAL THEME 03      여행작가 류진의 하와이치앙마이 한 달 살기
- 16 SPECIAL THEME 04      한 달 살기, 무엇보다 준비할까

## 사람과 건강

- 20 건강 읽기      가을철 주의해야 할 3대 전염병
- 24 인하포커스      인하대병원 외과
- 30 영화와 인생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와 <맘마미아>
- 34 계절밥상      이토록 맛있는 고등어 요리
- 36 콧노래 여행      경상북도 경주 여행
- 42 공간 풍경      인하대병원 장기 기증자 추모 현판

## 인하, 사람

- 44 인하가 만난 사람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
- 48 인하라운지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와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 50 인하이슈      미국에서 보낸 뜻깊은 14일
- 52 톡톡 약물상담      이명
-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 56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19년 가을호(통권 제134호) 발행일 2019년 9월 2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  
 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낮선 도시에서 지내는 보통의 한 달

요즘 여행의 트렌드라면 단연 '살아보는 여행' 즉, '한 달 살기'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이 되어 일상을 영위하고,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의 시선으로 낯선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죠. 동네 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사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얼키설키 이어진 비좁은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거닐고, 숙소에서 빈둥빈둥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낯선 도시가 건네는 경험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간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행의 전제였다면, '산다'는 것은 좀 더 깊고 내밀하며 독특한 여행 경험입니다. 더 오래, 더 깊이 여행하는 매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 도시는 나를 품어주었고, 나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작년 9월, 정확히 이맘때였다.

나는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지척에 둔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글 글짓는정(情)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인내로 버텨야 하는 장장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니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으로 더 잘 알려진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일정,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길 나서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여행지, 꿈의 유럽 중 한 도시다. 유럽에는 한 곳만 꼭 찍어 여행하기에는 매력 넘치는 도시가 워낙 많다. 잠시 고민했다. '욕심을 한껏 부려 여러 도시를 여행할 것인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한 도시에서 오래도록 진득하게 머무르기로 마음먹었다. 한 도시만을 깊고 진하게 사랑하고 싶고, 무엇보다 현지인이 되어 살아보고 싶었다.

9월의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늦여름 날씨다. 미세먼지 없이 화창하고 푸른 하늘, 낮선 생김새의 사람들, 고딕양식 건축물과 근사한 거리 예술가들이 내가 지내던 익숙한 일상을 떠나 낯설고 생경한 도시에 도착했음을, 이방인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생각 없이 마시고 먹고 걸으며 뉘을 놓고 도시를 탐색하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났다. 대부분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커피와 함께 와인과 맥주를 파는 덕분에 거의 모든 식사에 주류를 곁들였다. 파에야와 감바스를 먹고 와인과 샹그리아, 그리고 맥주를 마셨다. 30유로짜리 아트티켓을 구입해 피카소를 만나고 호안미로도 만났다. 아트티켓 한 장이면 총 여섯 곳의 바르셀로나 미술관을 볼 수 있는데, 하루 2만 보 이상씩 걸으며 다섯 곳의 미술관에 도장을 찍었다. 소극장에서 열정의 춤 플라멩코 공연을 관람하고,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축가 가우디 투어도 했다. 100년이 넘도록 계속 짓고 있는 성당, 사그라다파밀리아를 보며 가우디 선생을 존경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여행자로서 철저하게 충실한 나날이었다.

문제는 여행한 지 8일째 불거졌다. 지난 밤 에어컨을 켜둔 채 이불을 덮지 않고 잤는지, 아니면 일주일의 강행군 탓인지 아침에 일어나니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 호된 몸살이 걸린 것이다. 머리는 뱅글뱅글 돌고, 몸 구석구석 근육마다 아우성을 쳐댔다. 이마에서는 열이 펄펄 끓었다. 덜컥 겁이 났지만 낮선 도시에서 병원을 찾을 마음은 안 내키고, 약국을 나갈 몸 상태도 아니어서 '오늘은 쉬어야겠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하루를 꼬박 여행지의 '내 집'에서 폭 쉬었다. 잠을 자다 비몽사몽 일어나 레몬으로 즙을 내 마시고 다시 잠을 자기를 반복했다.

바르셀로나에 머무는 동안 내 집은 두 곳이었다. 첫 번째 집은 람브라스 거리에서 넘어지면 바로 닿는 한인민박이고,

나흘째부터 묵은 두 번째 집은 사그라다파밀리아에서 걸어서 6분 거리였다. 몸살이 찾아온 날에는 두 번째 집이 익숙해진 후였다. 여행메이트는 길을 나선 터라 아팠던 날의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틈에 친해진 여행지의 집이 나를 포근하고 아늑하게 품어준 것이다. 하루 푹 쉬고 나니 거짓말처럼 몸살이 달아나고 몸은 평소 컨디션을 되찾았다.

다음 날부터는 명소를 한 곳이라도 더 보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일지 않았다. 아직 이 도시에 머무를 날이 많았다. 말 그대로 빈둥빈둥 쉬엄쉬엄 살아보는 여행을 했다. 인근 마트에서 산 신선하고 재미있는 현지 식재료로 매일 아침과 늦은 밤 야식을 차려 먹었다. 덕분에 우리 집 냉장고는 늘 배가 부른 채였다. 아침에는 사그라다파밀리아까지 호젓한 산책을 즐기고, 거룩한 성당을 지긋이 바라보며 매일 모닝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렸다.

한 도시를 여행하는 데 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2박3일? 짧아도 너무 짧다. 여기에 며칠 밤을 더한다고 그 도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도시는 더 생경하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시간을 물리적으로 나누어본다. 못해도 한 달은 살아보아야 어디 가서 그 도시에 대해 알은체 하고, 명함 좀 내밀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에게는 새로움을 탐닉하는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 사는 일이 익숙해지고 무료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움을 찾아 여행을 한다. 여행은 미니멀 라이프이고, 여행자는 미니멀리스트가 된다. 최소한의 짐만 꾸려 낯선 도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민과 슬픔은 내가 진짜 사는 곳에 두고 왔으므로 여행지에서서는 조금 가벼워져도 좋다. 매일 눈앞에 설거지 산이 쌓이지 않고, 매일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고 개지 않아도 되니 여행, 참 좋다. 찰리채플린은 인생을 두고 '멀리서 희극, 가까이서 비극'이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했지만 나는 여행이 이 문장에 꼭 들어맞는 것 같다. 가까운 일상은 자주 부대끼고 복닥거리는데, 여행은 자주 웃음이 나고, 즐거워지니 말이다.

여행을 해보면 내가 평소 얼마나 넘치는 소유를 가졌는지 깨닫게 된다. 반대로 여행하는 동안 진짜 소중한 것, 익숙해진 탓에 놓쳐버린 소유의 가치를 알게 된다. 두고 온 것들 중에서 '진짜'는 여행지에서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동안 배운 대로 보고 듣고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행은 그 도시의 공기와 햇살과 바람만으로 이미 충분하니까. 어쩌면 살아보는 여행, 한 달 살기 역시 진짜를 그리워하기 위해 그렇게 오래 떠나야 하는 건 아닐는지.

노아로이 가족의 발리 한 달 살기

## 아이와 함께 먹고 사랑하기

네 살 노아와 두 살 로이 형제를 둔 김강아 씨 가족의 한 달 살기 여행지는 '발리'다. 가족은 올해까지 발리에서 모두 네 번을 살며 여행했다. 엄마 강아 씨에게 살아보는 여행은 아이와 함께하기에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날이 좋았다. 글 편집부 사진 김강아

속도 증독은 여행에도 적용될 때가 많아요. 여행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하면 느긋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어요. 좁은 논두렁길은 빠르게 걸을 수 없잖아요. 그곳을 걷듯 천천히 걸어보는 하루,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다급한 마음의 선풍기를 끄고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고, 조금 느리지만 상쾌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한 달 살기 여행 안에 들어 있어요.

### 아이와 함께 네 번의 발리 여행

호주 시드니에 사는 우리 가족은 자주 발리로 여행을 떠나요. 발리는 호주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훌쩍 다녀오는 여행지예요. 한국이라면 일본이나 홍콩처럼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지요. 뜨거운 태양이 인도양 저 너머로 자취를 감추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신과 꽃들의 섬 발리는 무척 매력 있는 여행지예요. 우리 부부는 특히 발리를 좋아하죠.

노아와 로이라는 귀여운 두 아들을 둔 엄마가 되고 나서는 이 세상 모든 엄마처럼 '아이와 함께'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행 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럭셔리 리조트나 정글을 탐험하는 색다른 모험을 즐겼다면 아이들이 생긴 후로는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주로 합니다.

올해까지 모두 네 번, 아이들과 함께 발리 한 달 살기 여행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주로 발리의 사누르 지역에 머물러요. 발리에서 오토바이와 여행객이 가득한 관광 지역은 아이에게 위험한데, 사누르 지역은 관광 지역 중에서도 보행자길이 비교적 잘 조성돼 유모차를 밀고 이동하기 수월한 곳이에요. 사누르 해변은 수심이 얇고 파도가 잔잔해 아이와 함께 물놀이하기도 좋죠. 그리고 발리에서도 조금은 느긋하고 한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한 달 살기 여행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또 발리 현지 자치단체의 힘이 커 크고 작은 세리머니와 다양한 발리 로컬 문화를 체험하기에 제격이에요.





### 자연의 마음을 품고 자라기를

아이와 함께하는 한 달 살기라면 숙소가 무척 중요해요.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방문을 열면 바로 수영장이 펼쳐지는 풀빌라가 좋았지만 이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숙소예요.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린 환경이니까요. 발리 깊은 산 속의 리조트는 대부분 계단이 많아서 유모차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둔 가족에게는 기피 대상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된 호스트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요. 이곳에서만 세 번 머무르며 여행을 했어요. 어느새 친정집처럼 익숙하고 편해져서 이곳에만 오면 게으름뱅이가 된답니다. 같은 장소에서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것도 기쁨입니다.

숙소의 초록 마당, 그리고 폭신한 잔디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에요. 커다란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호스트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는 아이들에게 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노아와 로이가 느림의 기쁨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자연과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를 가슴에 가득 품고 자랐으면 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놀던 때예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비가 오면 집으로 피해야 하는데, 발리에서는 밖에서 비를 맞으며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요. 평범한 일이 평소에는 왜 어려울까요.

아이를 데리고 낯선 곳에서 살아보는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든 순간이 많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날이 좋았어요. 아이와 함께할 때야말로 조금 천천히 해도 좋은, 느린 여행이 가능해요. 미처 보지 못한 것,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 노아·로이 엄마 김강아 씨가 알려주는 한 달 살기 여행 팁

#### • 발리 과일은 아이의 요긴한 식량

간혹 아이 먹거리 때문에 곤혹을 치를 수 있어요. 둘째 로이는 무엇이든 잘 먹었지만 첫째 노아는 인도네시아 밥을 거부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아이의 비상식량이 필요합니다. 발리에는 망고, 귤, 바나나, 수박, 옥수수, 레몬 등 아이의 배를 채울 과일과 간식거리가 많으니 걱정 마세요. 무엇보다 발리는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는 물론 어른도 걱정할 것 없답니다.



여행작가 류진의 하와이·치앙마이 한 달 살기

## 언제까지 '여기'에서만 살 순 없어요

여행작가 류진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트래블러>에서 일하는 동안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차오르면 야생의 대자연으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하와이와 치앙마이에서 각각 살아보는 여행을 한 그녀의 이야기. 글·사진 류진(여행작가)

여행 잡지에서 일하면서 근 6년간 거의 매달, 한 달에 1~3회 해외 출장을 갔어요. 낯선 곳에 짧게 머무르는 여행은 분명히 매력 있는 모험이지만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마저 이골이 나죠. 여행을 할수록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는데, 그 도시의 '네이버후드(neighbourhood)'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낯선 도시에서 친구를 만들고, 시장에서 처음 보는 재료를 사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보고, 단골 가게 직원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살아본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머무는 여행'이니만큼 '관광'에서 느끼는 기쁨과 다른 것은 확실해요.

일상에서 관성처럼 굳은 내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살아보는 여행은 낯선 환경에 오래 머물면서 그걸 완전히 깰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환경은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나 번뇌를 까맣게 잊게 해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사람과 좀 떨어지고 싶어서 멀리 혹은 자연 속으로 떠나는 편인데, 살아보는 여행을 하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볼 때 가장 좋았어요.

**하와이, 대자연의 품에서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하와이에서는 거의 매일 이 세계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섬은 왜, 이런 축복을 전부 누리는 걸까? 다른 사람에게 '하와이'가 어떤 심상을 주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하와이는 마더 네이처(mother nature)라는 단어의 느낌 그 자체입니다. 자연이 오만 가지 얼굴을 품고 있는 곳, 매 순간 자연에 감응할 수 있는 곳. 도시 사람들이 아주 가끔 하늘에 감탄하고 날씨에 행복을 느끼고 노을을 보며 삶을 관망한다면, 하와이에선 매일,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너무 아름다워서 생각이 무척 단순해져요. 내가 도시에서 그토록 스트레스를 느꼈던 요인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미물이고, 인간이 가진 순간의 감정은 더 하찮거든요. 쉽게 말해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잡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소죠.

살아보는 여행을 하는 동안 지역의 특성이 일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곳이 어디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기에 최적인 장소를 고르기도 하고요. 물론 '남들이 다 가는 데'도 꼭 갑니다. '남들이 다 가는 데'는 안 가는 게 '힙'한 여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남들이 다 가는 데는 그만큼 이유와 가치가 있거든요. 며칠은 관광으로 그 지역을 탐색하고, 그게 끝나면 그냥 게으르게 보냈어요.

하와이에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바다, 저 산을 종횡하면서 땀 흘리고 멍 때리고 책을 읽었어요. '공짜'인 부기 보드 서핑, 스노클링 같은 레저는 마음껏 즐기구요. 그리고 노을이 지는 시간에 맞춰 바다에 나가는 걸 아주 중요한 일과로 여기며 지켰습니다. 엑셀 파일에 빼곡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아무 것도 안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에 사는 제겐 가장 요원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준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삶의 태도를 바꿔준 도시입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더운 여름 날 나무그늘 아래서 깜빡 든 낮잠'과 같은 태도로 삶을 대해요. 서두를 것도 급할 것도 없이, 쉬고 싶으면 잠시 숨을 고르는 삶.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 감정을 꾸미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의를 품지도 않는 삶. 사람들이 치앙마이를 '잠깐' 여행하든, 혹은 이 도시에 오래 머물든 여기에서 '힐링'이 됐다고 말하는 건 무심결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주 마주해서 그런 걸 거예요. 여행의 '질'과 '기억'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 그 지역 사람들의 성정, 삶의 방식 같은 게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치앙마이에선 하와이에서보다 더 아무 것도 안했어요. 마음의 독소를 빼는 게 중요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요가는 발리와 인도가 더 유명하지만, 치앙마이에 꽤 괜찮은 커리큘럼을 가진 요가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주일에 2~3회 요가를 하고, 요가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제즈바, 카페, 식당 같은 곳을 다니며 한량처럼 놀았습다. 가장 좋아했던 일과는 시장 보기예요. 태국은, 특히 치앙마이는 식재료의 천국이거든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사도 물가가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재료에 기댄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재미가 컸는데, 그거야말로 '살아보는 여행'의 궁극 아닐까요? 어떤 날은 요가 선생님이랑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득 정신을 차리니 일곱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녀가 남자였다면 아마 청혼했을 거예요. 이런 거 뜯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영혼'이 통하는 기분으로 말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여행이 그걸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행은 경계를 낮추고, 나답지 않은 또는 그게 진짜 나일 수도 있는 모습을 무방비로 노출하게 해요.

**류진 여행 작가가 알려주는 한 달 살기 여행 팁**

**• 낯선 여행지에서 내 집 갖기**

하와이에선 오아후가 있는 본섬, 마우이, 빅아일랜드 사이를 옮겨 다니며 여행했기 때문에 호텔과 민박, 에어비앤비, 방학을 맞아 일반인에게 숙박을 허용하는 대학 기숙사 등을 오가며 머물렀습니다. 치앙마이는 '한 달 살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전문 관리사가 매일 관리하는 아름다운 정원, 수영장, 집이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호사를 누렸어요.





# 한 달 살기, 무엇부터 준비할까

치앙마이, 발리, 제주 등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모아 정리했다.

막연한 꿈으로 간직해왔던 '한 달 살기', 이젠 실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글유미지

요즘 여행 트렌드는 '한 달 살기'다. 패키지 투어의 빠듯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걷다 현지 사람들이 복적이는 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장바구니에 채워 먹는 '쉬는 여행'을 선호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불안감과 모아놓은 돈을 여행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한 달 살기는 직장인의 한 달 월급으로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이 가능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는다.

한 달 살기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제주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치앙마이 멀게는 유럽의 체코 프라하 등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이와 함께 한 달 살기에 도전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한 달 살기, 계속 생각만 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한 달 후 변해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 한 달 살기 할 때 도전해보면 좋은 프로그램

### 태국 치앙마이 쿠킹 클래스

치앙마이에 위치한 학교 또는 유기농 농장에서는 요리에 필요한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직접 따고, 숙련된 전문 셰프와 함께 요리를 하는 쿠킹 클래스가 곳곳에서 운영된다. 볶음요리, 스프, 카레 등 원하는 요리를 선택해 배울 수 있으며 내가 만든 태국 요리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 인도네시아 발리 요가 클래스

발리 하면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우거진 정글,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요가를 배우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하타, 빈야사, 인 요가 등 초심자를 위한 오픈 레벨부터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전문가 코스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많은 요가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요가를 하며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보고 싶다면 발리 요가원의 문을 두드려보자.



## 베트남 호이안 랜턴 메이킹 클래스

베트남에서 랜턴은 행운과 기쁨, 부를 상징한다.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랜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호이안에서는 실크와 대나무를 이용한 독특한 모양의 랜턴을 만들 수 있다. 초보자용 클래스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완성하는 클래스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기념품 구입할 필요 없이 직접 랜턴을 만들어 더 의미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 캄보디아 씨엠립 크메르 도자기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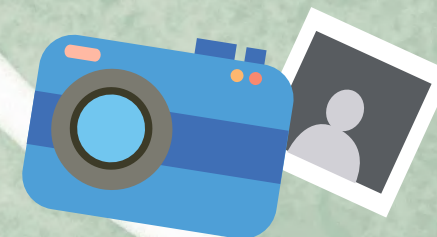
양코르와트를 수놓은 크메르 문양에 압도되었다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크메르 정신을 담은 나만의 도자기를 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물을 돌리며 마음에 드는 도자기 모양을 만든 뒤 크메르 디자인을 새겨 선생님에게 전달하면 다음 날 완성된 도자기를 받을 수 있다.

## 인도네시아 발리 바틱 만들기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사람들이 독특한 문양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 유산인 바틱으로 만든 옷이다. 바틱은 천에 뜨거운 왁스를 발라 만드는 납힐염 기술을 이용한다. 바틱을 체험할 수도 있다. 바틱 특유의 패턴을 전통 도구를 이용해 그리고 천을 물들여 핸드메이드 바틱을 만들 수 있는 것.

## 체코 프라하 마리오네트 만들기

체코의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무려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얇은 실 하나로 다양한 동작뿐만 아니라 미세한 얼굴 표정까지 표현해내는 마리오네트 인형은 장인들이 일일이 만든다. 이들이 운영하는 공방에 가면 마리오네트 인형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원하는 인형 모델 선택부터 스케치, 채색, 관절을 이어 실로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체코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다.





### 한 달 살기 숙소, 어떻게 정할까?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다. 에어비엔비, 호텔, 한인민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다양하다.



### 현지인처럼 살고 싶을 땐 에어비엔비

에어비엔비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집을 통째로 선택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진과 컨디션이 다르거나, 이동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반드시 리뷰를 확인해본다. 또, 이용 금액에 서비스 수수료와 청소비가 따로 청구되므로 함께 금액을 확인하고 예약한다.



###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호텔

호텔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장점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비싸다는 것. 한 달 내내 호텔에 머무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3주 가량은 조금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는 시점 즈음에 호텔에서 머무르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요즘엔 호텔마다 한 달 살기와 같이 장기로 머무는 숙박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곳도 많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각 호텔이 준비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무엇인지, 혜택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호텔을 찾으면 '호텔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

### 여행지가 처음일 때는 한인민박

한인민박의 최대 장점은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것. 게다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여행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 현지 음식에 질릴 때쯤 김치나 찌개처럼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걱정이라면 한인민박을 선택해 지내는 것도 방법이다.

### 여행 중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애플리케이션 3

#### 그랩(Grab)

투박이 여행자에게 발이 돼 줄 필수 앱.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기본 용도를 넘어 요즘엔 음식을 배달하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기사와 채팅할 때 한국어를 입력하면 자동 번역 되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하다.

#### 민다(Minda)

호텔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은 많지만 한인민박을 알려주는 플랫폼은 드물다. 민다는 한인민박부터 호스텔, 펜션, 콘도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더불어 현지인이 추천하는 투어 및 클래스 등의 알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구글(Google) 번역

내가 번역기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번역기를 사용해 답을 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공통으로 사용할 번역기가 필요하다. 구글 번역은 103개 언어 번역이 가능하며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32개 언어로 즉석에서 양방향 번역 또한 가능하다. 게다가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으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어 외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가을에 대한 예의

덥거나 춥지 않은 선선한 요즘 날씨는 행간에서 잠시 쉬어도 좋다고 말해요. 바야흐로 풍요로운 가을에는 익숙한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 질게 배어나는 책을 한 권 집어 들어볼까요. 책을 읽으며 가을 창고에 곡식을 쌓듯 내 속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책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 오래 품어온 고민의 무게도 덜고 싶어요. 구태의연하다고 해도 독서의 계절, 가을이니깐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야외 활동하기 좋은

# 가을철 3대 전염병

날이 좋아 야외 활동을 자주 하게 되는 가을철에는 열성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3대 전염병으로 꼽는 유행성출혈열, 쯤쯤가무시병, 렘토스피라증인데, 이들 질환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은 각각 다르다.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임재형 교수가 가을철 3대 열성질환이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법을 들려줬다.

글 유미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도움말 임재형(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가을철 조심해야 할 3가지 질환

9월부터 11월까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유행성출혈열, 쯤쯤가무시병, 렘토스피라증과 같은 열성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2018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쯤쯤가무시병(6668명), 유행성출혈열(433명), 렘토스피라증(118명)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은 왜 가을에 유독 극성을 부릴까.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임재형 교수는 “가을은 들쥐, 털진드기 등의 유충이 많은 시기인데, 날이 좋은 만큼 사람들이 소풍,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가을에는 큰 일교차 탓에 호흡기 감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 발생원인은 모두 다르다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부르는 **유행성출혈열**은 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에 섞여 나온 한타바이러스가 야외 활동하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경기도 한탄강 지역에서 처음 발견돼 한타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다.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7% 정도로 높은 편이다.

예전에는 늦봄인 5월부터 7월 사이와 본격적인 가을철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지만 요즘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임재형 교수는 “유행성출혈열은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국내에는 총 6종의 한타바이러스가 있으며 이 중 한탄, 서울, 수청, 무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세 가지 질환 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쯤쯤가무시병**은 오리엔샤 쯤쯤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된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는데, 농촌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고령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이나 들에서 많이 활동하는 군인, 등산객에서 발생한다. 특히 성묘 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쯤쯤가무시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렘토스피라증**은 렘토스피라(leptospira) 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거나, 오염된 토양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여름철 장마 때문에 야생 쥐들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균이 여기저기 전파되는 8~11월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가을철 벼 세우기, 추수 같은 작업이 큰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임재형 교수는 “렘토스피라 균은 추수기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들이 익은 벼를 먹으려고 논두렁에 굴을 파고 지내는 중에 쥐 굴 속의 렘토스피라 균이 호우에 쓸려나오고, 이것이 농부나 야외 활동하는 사람의 피부 상처를 통해 침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발열부터 의식 장애까지 다양한 증상 나타나

**유행성출혈열**은 1~3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초기 증상은 7~8일간 심한 감기처럼 열이 나고, 복통, 구토가 발생하다가 1주일 후 혈압이 떨어져 쇼크, 내장출혈, 신부전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임재형 교수는 “전형적인 임상경과는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를 거치는데, 거의 모든 환자가 발열기와 이노기를 경험한다. 저혈압기는 11~40%에서, 핏노기는 40~60%에서 경험한다”라고 설명한다.

**쯤쯤가무시병**은 발열, 몸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며, ‘가피(Eschar)’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피는 털진드기가 문 자리에 생기는데, 통증 없는 직경 5~10mm의 얇은 피부 궤양 위에 앉는 검은 딱지이다. 임재

형 교수는 “보통 발진성 발열이 특징이지만 폐렴이나 심근염, 뇌수막염 같은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렙토스피라증**은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근육통, 구토가 생기며 결막하 출혈이 나타난다. 심하면 황달과 객혈, 경련 및 의식 장애까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폐출혈열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 각각 조금씩 다른 치료법

이 세 가지 질환은 조기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된다. 하지만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에 신경 써야 한다.

이들 질환이 의심돼 병원을 찾으면 가장 먼저 잠복기 내 야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임재형 교수는 “환자의 활동 내력을 확인하면 혈액검사와 더불어 빠른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쯔쯔가무시병**과 **렙토스피라증**은 먼저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임재형 교수는 “렙토스피라증은 경증일 때는 독시사이클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등을 경구 투여하고, 중증이면 페니실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매크로라이드 등을 처방한다. 쯔쯔가무시병은 독시사이클린, 매크로라이드, 클로람페니콜 등을 처방한다”고 설명한다.

유행성출혈열은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경과 중 발생하는 신부전, 폐부종 등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에 따라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

### 가을철 3대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가을철 3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시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입는다. 또 잔디 혹은 땅바닥에 눕는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 전후 옷과 몸을 살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비눗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다.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는 데는 진드기 기피제가 도움이 된다.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출혈열은 국내 신약 1호인 예방백신(한타박스)이 있어 군인이나 실험실 종사자, 산과 들에서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임재형 교수는 “무엇보다 야외 활동 이후 2주 정도 이내에 감기처럼 열이 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기를 권한다”라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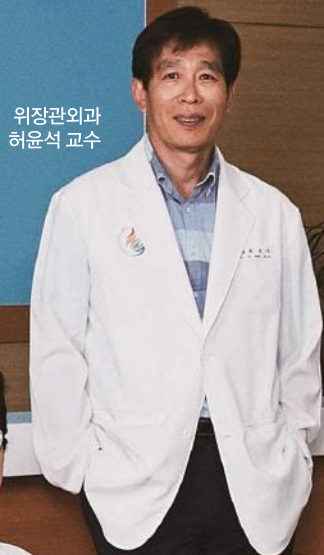


**임재형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감염내과에서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인수공통감염, 예방접종, 여행의학 등을 진료하고 있다. 임재형 교수는 가을철에는 매우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담체외과  
신우영 교수



위장관외과  
허윤석 교수



소아외과  
최윤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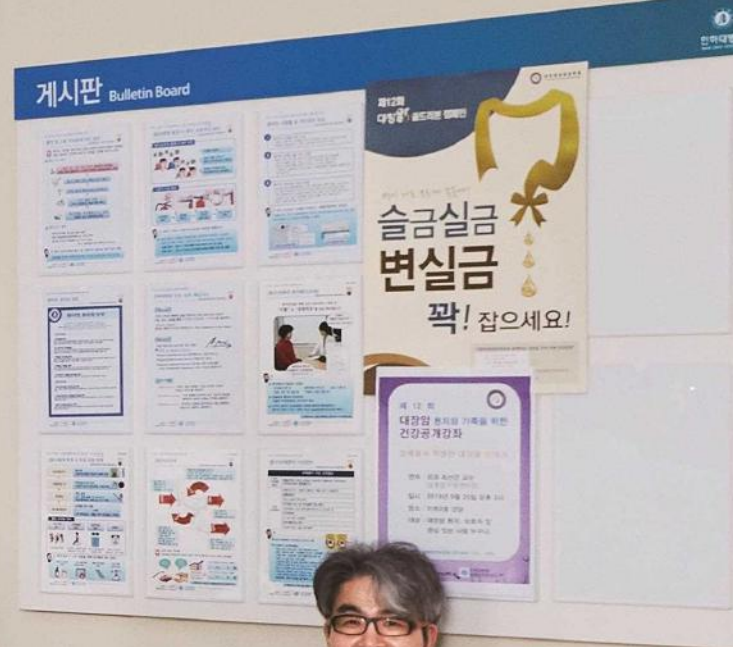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진욱 교수



유방외과  
허민희 교수



대장항문외과  
최선근 교수



수술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 외과

인하대병원 최근 외과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세부 분야가 활성화하는 추세에 따라 위장관외과, 간담체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혈관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등으로 분과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소에서 가능하게 한 여성암센터, 인천에서 유일하게 소아 외과 수술이 가능한 소아외과, 간담도 및 혈관외과를 활발히 운영하며 많은 환자에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민희 교수는 “인하대병원 외과 의료진들은 대학병원의 역할인 환자의 진료, 연구,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이식 수술 분야와 내시경 수술 및 최소 침습 수술 등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장관외과 허윤석 교수**

허윤석 교수가 인하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4년 전이다. 전문 분야는 위암 수술이다. 개복수술을 하던 시절부터 복강경 수술이 도입될 때까지 모든 변화의 순간에 함께 있었다.

10년 전부터는 비만대사 수술, 역류성식도염 수술에 힘을 쏟았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비만에 일찍 주목해 비만대사외과학과를 창립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만대사수술에 관한 교과서를 집필하고, 진료지침을 만들었다. 특히 그는 고도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수술로 치료할 때 환자가 국가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올해 비만대사수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그간의 노력에 보답을 얻었다.

그동안 위암, 고도비만, 당뇨병, 역류성식도염을 주로 치료해온 그는 수술 없이 완치를 기대하기란 힘들다고 말한다. 역으로 말하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비만, 제2형 당뇨병, 역류성식도염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 가능하다. 그런데 환자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앞으로 이들 질환을 수술로 완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장항문외과 최선근 교수**

대장항문외과 최선근 교수의 삶에서는 '인하'라는 두 글자를 빼놓을 수 없다. 스무 살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1기로 입학해 1999년에 모교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 대장항문외과 전임의를 거쳐 정교수에 이르기까지 인하대병원에 20년째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교육수련부장과 적정진료관리실장, 감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암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의 전문 분야는 결장과 직장을 포함하는 대장암이다. 대장암과 관련된 모든 수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복강경과 로봇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을 주로 시행한다.

최선근 교수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되뇌는다. “의사에게 환자는 자신이 돌보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환자

**폭넓은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갖춘 인하대병원 외과**

외과는 수술을 시행해 환자를 치료하는 만큼 전문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의학 분야다. 이에 인하대병원 외과는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 교수와 신기술을 갖춘 주니어 교수를 함께 모아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해 더욱 심도 있는 진료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외과의 주된 영역은 암 수술이다. 인하대병원 외과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각 분야의 최신 기술이 반영된 수술 및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며 새로운 외과의 영역으로 불리는 비만수술(위우회술 등)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인하대병원 외과는 로봇수술을 도입하면서 더욱 빨리 성장 중이다. 인하대병원 외과 교수이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장 허민희 교수는 “인하대병원이 로봇 수술을 빨리 도입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데 외과가 원동력이 되었다. 단기간 내에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과도 외과”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인하대병원 외과는 새로운 외과 영역으로 불리는 비만수술(위우회술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유방암, 갑상선암 등 여성암의 검사와 진단을 하루에 한 장

에게 의사라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매 순간이 질문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한다.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좋은 의사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장항문외과 교수답게 그는 건강의 기본 요소를 '패식' '패면' '패변'으로 꼽으며 강조한다. “우리 몸의 영양소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장에는 몸속 독소 대부분이 집결된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가 반드시 '삼패'를 이루어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누리기를 기원한다.”

**유방외과 허민희 교수**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그중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환자가 감소하는 데 반해, 유방암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 외과에서는 유방갑상선외과센터를 분리해 진료 중이다. 센터장은 유방외과 허민희 교수가 맡았다.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유방갑상선외과센터에 내원하면 당일 초음파검사와 세포검사,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빠른 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최신 유방 진단 장비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진공보조유방생검장치를 갖추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허민희 교수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로봇수술이다. “조기유방암은 로봇을 이용하여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전절제술이 가능하다. 유방 재건을 함께 적용해 흉터를 적게 남기고 수술할 수 있도록 의료를 혼련할 생각이다.” 허민희 교수의 말이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정기 검진이 필수다. 허민희 교수는 유방암 발병 원인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지방식은 줄이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적절한 운동은 필수다. “유방암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환자 수에 밀려 의료진의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진료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게 강구하겠다.”

**소아외과 최윤미 교수**

소아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소아외과는 다르다. 약물 투약과 시술로 치료하는 소아과와 달리 소아외과는 출생 직후의 신생아부터 만 18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의 외과 질환을 수술로 치료하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엔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아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다. 1996년 개원부터 2000년까지

서정민 교수가 있었고, 2005년부터는 최윤미 교수가 함께 해오고 있다. 최윤미 교수는 신생아부터 만 18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의 복부 수술을 주로 하며 특히 신생아 기형을 치료한다.

최윤미 교수는 모든 생명은 살려고 태어난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치료하는 환자가 소아인 만큼 수술 후에도 환아를 계속 관리하고 지켜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술한 환자가 수술 후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외국인 유학생 부부 사이에 태어난 선천성 장폐색 환아가 수술 후 잘 회복해 집으로 돌아간 경우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소아외과 환자는 수술로 간단히 치료되는 병도 있지만 항문 막힘증과 같이 수술 후에도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관리해야 하는 병도 있다. 최윤미 교수는 아이가 당장은 아파도 보호자가 꾸준히 돌보면 결국 나아지니 지치지 말라고 조언한

다. “아이가 아프면 주변에 비슷한 병을 가진 환자 모임을 찾는 부모가 있다. 환자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고 보호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부모 모임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현명하다. 앞으로 인천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로서 인하대병원을 찾는 소아환자들을 성심껏 진료하겠다.”

**간담췌외과 신우영 교수**

간담췌외과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간, 담도, 담낭, 췌장의 질환을 치료하는 과다. 신우영 교수는 간담췌외과에서 간, 췌장, 담낭과 관련된 질환을 진료하고 간이식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국내 암 사망률은 2위에 달할 만큼 간과 관련된 질환을 지닌 환자가 많다. 흔히 간암의 원인이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B형 간염, 간경변증 같은 만성 간질환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지속적인 만성 간질환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한다. 신우영 교수는 특히 A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손과 물, 조개류와 같은 음식, 대소변을 통해 사람의 입을 거쳐 감염된다. 전염성이 높아 ‘유행성 간염’으로 불리기도 한다. A형 간염은 80년대 이후 국내 위생환경이 개선되면서 거의 없어졌으나, 해외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국내로 재유입되었다. 50대 이하에서는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아 국내 유행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정도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구토와 극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급성 A형 간염 환자의 약 1%는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어 응급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 간 이식은 급성 또는 만성이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간질환을 지닌 환자에게 행해진다. 여러 내외과 치료로도 병에 진척이 없거나,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예상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에게 시행되기도 한다.” 신 교수의 말이다.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역시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A형 간염 항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6개월 간격으로 2회 백신을 접종한다. 간담췌 질환을 수술이나 이식으로 치료했다라도 남은 부위가 여전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간암 등의 질환이 재발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간담췌 질환 환자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만성 간 질환 관리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진욱 교수**

이진욱 교수가 인하대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에 온 것은 불과 1년 전.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약 490건의 수

술을 시행했다. 그의 전문 진료 분야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과 부갑상선, 부신이다. 갑상선암에서 목 앞쪽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하는 구강내시경 수술, 로봇을 이용한 BABA 갑상선 수술을 주로 한다.

갑상선암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기존 절개 수술법은 목 앞쪽에 5-10cm 길이의 긴 흉터가 남아 환자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 “수술 흉터는 미용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큰 문제다. 따라서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병변의 위치나 크기, 개인의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흉터가 가장 적으면서도 종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수술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

이진욱 교수는 갑상선암의 예후가 대부분 좋다고 알려져 오히려 진료나 치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다는 말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다.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고,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갑상선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 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후유증이 생긴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면 반드시 갑상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와 <맘마미아> 순수한 즐거움에 대한 모든 세대의 환호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스마트폰에서, 직장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아바의 음악과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된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함께 살아난다. 오늘은 오랜 세월 후 되살아나 모든 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바의 음악을 모아 만든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와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이다. 글 송준호(대외홍보정책 실장·신정내과 과장)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스틸컷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 두 편의 아름다운 음악 영화

사람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것에 아름다움을 느낀다. 영화와 음악에는 켄 척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관객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만이 목적인 작품들이 있다. 버스터

키톤과 채플린 시대의 무성영화가 그렇다. 재키 찬의 스틸트 영화는 저렴하고 뻔한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영화 엔딩 타이틀의 NG 모음에서 엿보이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다. 1970~80년대의 팝 뮤지션 중 아바(ABBA)가 그런 뮤지션이었다.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오락과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1970~80년대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최신 음악을 들으려면 청계천 해적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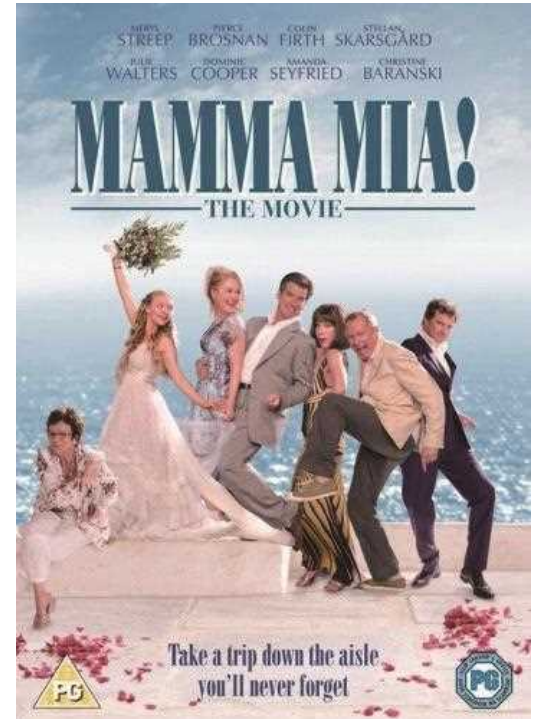
사서 오디오가 있는 친구 집에서 테이프를 바꿔야 했고, 새로 나온 영화 한 편 보려면 종로의 몇 안 되는 개봉관에서 아침부터 서너 블록 줄을 섰다가 늦은 오후 표를 사야 했다. 그렇게나 불편했던 아날로그 시대지만 그리움을 느낀다. 디킨스의 문장처럼 '모든 것이 있었고 아무 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평범한 틴에이지에게 아바 혹은 퀸(queen)은 질풍노도의 마음을 달래주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모두 기억에서 사라졌다.

40년이 지난 요즘 아이들의 스마트폰에서, 직장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아바의 음악과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된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함께 살아난다. 같은 음악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 접하는 레트로 트렌드 음악으로, 부모에게는 오래 전 감정이 묻어 있는 추억으로 들린다. 오늘은 오랜 세월 후 되살아나 모든 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바의 음악을 모아 만든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와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이다.

### 아름다운 아바의 레퍼토리, <맘마미아>

아바는 스웨덴 출신의 4인조 그룹이다. 1974년 'Waterloo'로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 그랑프리를 차지한 후 'SOS', '맘마미아', '페르난도', '댄싱 퀸', '허니 허니' 등 단순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전 유럽을 제패한다. 대중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심플한 음악이어서인지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해 빌보드 1위에 '댄싱 퀸' 하나밖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 호주,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대단해서 전성기에 스웨덴의 국부는 볼보자동차와 아바가 다 벌어들인다는 말이 있었다. 몇 년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맘마미아'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냉대하더니...' 하는 생각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당대의 평론가는 아바의 음악은 '순수한 즐거움(pleasure)의 음악'이며 '세월을 이기고 가장 오래 남을 음악'이라고 평했다. 그 기교 없는 단순성이 <맘마미아>로 부활하여 미국을 제패했다.

아바의 음악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미 인기를 누린 음악을 가져와서 스토리로 엮은 대중 뮤지컬을 말한다)을 착안한 사람은 영국의 프로듀서 주디 크레이머이다. 아바의 베니 앤더슨과 비요른 올바에우스를 설득하고, 극작가 캐서린 존슨에게 대본을 맡겨 완성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99년 런던에서 초연하고 2001년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다. 영화 버전 감독은 초연 뮤지컬을 연출했던 여성 연출가 '필리다 로이드'가 맡았다. 영화감독으로 첫 경력이었지만, 몇 년 후 마가렛 대처 일대기를 그린 <철의 여인>의 연출로 감독으로서 역량을 증명했다.



<맘마미아>는 아바의 주옥같은 음악을 엮어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결혼을 앞둔 소피는 엄마의 비밀 일기장에서 알게 된 엄마의 세 옛 연인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누가 나의 친아빠일까? 엄마와 딸과 아빠들의 인생을 새로이 엮어주는 아름다운 아바의 레퍼토리.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이야기 <보헤미안 랍소디>. 인도계 영국인 파로크 불사라로 태어나 퀸의 세계적 보컬리스트가 된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라이브 에이드'에 참여한다. 마지막 20분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은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고 싱얼롱(singalong) 관람이라는 유행을 만든다.

영화 <맘마미아>는 그리스의 작은 섬 칼로카이리에서 조그만 호텔을 운영하는 엄마와 결혼식을 앞둔 딸의 이야기이다. 소피(아만다 시프리트)는 엄마 도나(메릴 스트립)의 일기장을 훑어보고 엄마에게 세 명의 연인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누가 아빠인지 알고 싶은 소피는 세 남자, 샘(피어스 브로스넌), 해리(폴린 퍼스), 빌(스텔렌 스카스가드)에게 몰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낸다. 뉴욕의 건축가, 런던의 은행가, 스톡홀름의 작가인 세 남자는 칼로카이리 섬으로 달려온다. 도나는 갑자기 나타난 과거의 세 연인을 보고 당황하지만(맘마미아!) 가슴이 다시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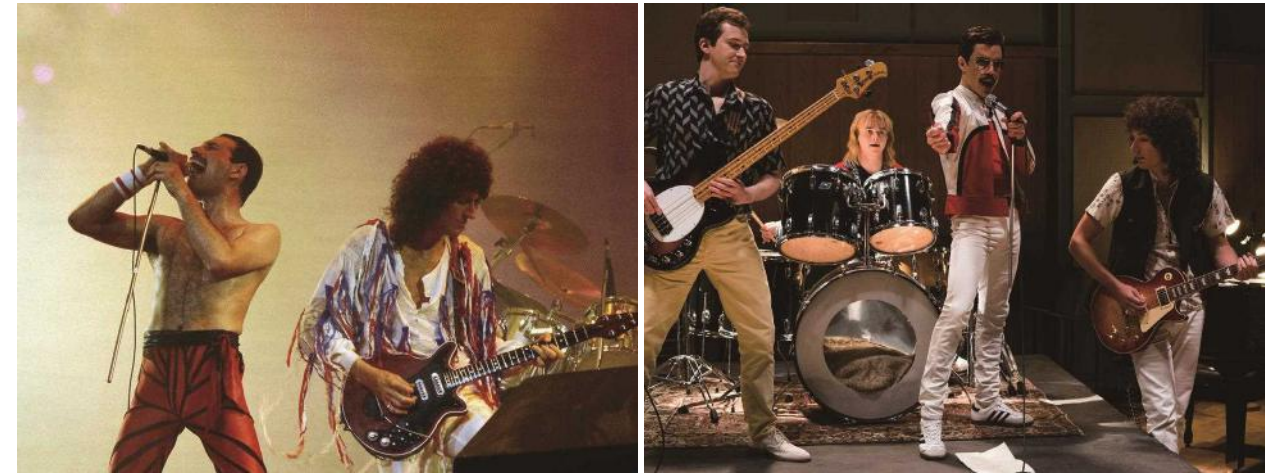
영화는 지중해의 풍광과 사람들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노래와 이야기를 절묘하게 엮어 아름답게 풀어낸다. 소피가 편지를 부치는 첫 장면에서 'I Have a Dream'이 엮여 같은 지중해의 여명과 어우러져 잔잔한 감흥을 자아낸다. 해리는 소피에게 도나와 보냈던 파리에서의 추억을 'Our Last Summer'로 들려준다. 이 노래가 이렇게 로맨틱한 줄 30년전에는 알지 못했다. 결혼을 앞둔 소피를 단장하며 부르는 도나의 'Slipping through the Fingers'는 부모가 된 지금 다시 다가오는 곡이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야 사랑을 고백하는 샘에게 회한의 마음으로 부르는 도나의 'Winner Takes it All'은 <맘마미아>의 절정이다. 영화는 누가 진짜 아빠인지 밝히지 않는다. 소피는 세상을 더 경험하기 위해 결혼식을 연기하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선포한다. 결혼식은 샘과 도나의 것이 되고, 지하수가 터져 물바다가 된 식당은 흥겨운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다음 날 여명, 소피는 세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I Have a Dream'의 멜로디 속에 여행을 떠난다. 예나 지금이나 가슴 벅차게 하는 피아노 인트로의 'Dancing Queen'이 엔딩 타이틀을 장식한다.

사실 <맘마미아>는 우리 정서에는 무척 이질적인 이야기이다. 제작, 연출, 대본을 모두 여성이 맡았고, 대본을 쓴 캐서린 존슨은 두 아이를 가진 미혼모로서 다분히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투사해 여성 뮤지컬로 만들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페미 코드 논쟁에서 나아가 퀴어 코드 논쟁까지 있었다. 미혼모 엄마와 세 명의 연인, 아빠를 가려내려는 딸이라는 거북한 이야기를 아버지의 음악은 흥겨움으로 승화해 엔딩에 모든 사람이 손뼉 치고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나라에서 15년간 1700회 공연으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중장년과 남성 관객을 가장 많이 모으고, 아버지와 딸을 한자리에 앉게 한 뮤지컬이다.

####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이야기를 담은 <보헤미안 랍소디>

두 번째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이다. 퀸은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 4명이 결성한 영국 그룹이다. 73년 데뷔 앨범 '퀸'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75년 논란의 '보헤미안 랍소디'가 수록된 앨범 '어 나이트 앳 디 오페라'로 당대의 그룹으로 등극한다. 정통 록보다는 대중적 취향에 기울어진 브리티시 록에 오페라 기교를 접목하여 '오페라틱 록'이라 불리는 장르를 창시했다. '보헤미안 랍소디'의 홍보용 영상물은 세계 최초 뮤직 비디오로 일컬어지는데, MTV가 생기기 훨씬 전의 이야기이다. 절정기에 '영국에는 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영국 여왕, 하나는 그룹 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여 매드 맥스(1979), 프레쉬 고든(1980), 하일랜드(1986)와 같은 B급 영화에서 발군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는 <유주얼 서스펙트>와 <엑스맨>



시리즈로 유명한 브라이언 싱어가 감독했다. 이 영화는 골든 글로브 작품상, 남우주연상과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편집상, 음향효과상을 받았다. 주연을 맡은 무명의 이집트계 미국 배우 라미 말렉은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다. 산적 두목 같은 실제 프레디 머큐리를 기억하는 팬들은 '틴에이저' 라미 말렉이 처음에는 탐탁지 않지만 점점 빨려 들어가 영화가 끝날 즈음에는 라미 말렉 판 프레디머큐리의 이미지가 각인되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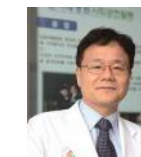
인도계(게다가 조로아스터교 신도) 공무원의 아들로서 록스타의 꿈을 가진 '파로크 불사라'는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만든 밴드에 보컬로 합류하고 이름을 프레디 머큐리로 바꾼다. 싱글 'Killer Queen'이 크게 성공하면서 미국 투어에 나서고 EMI와 계약을 맺은 퀸은 전문가들의 만류에 불구하고 6분에 달하는 기이한 대곡 '보헤미안 랍소디'를 발표하여 세계적 밴드로 도약한다. 그러나 프레디의 특별한 성 정체성과 멤버 간 갈등이 쌓이면서 퀸은 결별한다. 파탄의 삶 속에 에이즈까지 걸린 프레디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옛 동료들을 다시 모아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라이브 에이드'에 참여한다.

브라이언 싱어는 영화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감독이다. 퀸의 결성에서 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 프레디 머큐리의 드라마틱한 삶을 날줄로 삼아 감동 선을 넣고, 박진감 있는 퀸의 라이브를 씨줄로 삼아 충격을 경험시키는 전략으로 역대급 흥행작을 탄생시켰다. 마지막 20분 동안 3D VR같이 실감 나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재현하는 데 전력을 쏟아 부어, 관객들이 웹클리 스타디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현장감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데 성공한다. 한 네티즌은 네이버 영화평에 다음과 같이 평한다. "살아생전 못 가본 퀸

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림키(kk11\*\*\*\*)". 마지막 라이브 장면의 중독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맥스 영화관과 싱얼롱(sing along) 상영관을 다시 찾게 만들었다.

우연히도 '맘마미아'와 '보헤미안 랍소디'는 75년 같은 해에 발표된 동갑내기 곡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보헤미안 랍소디' 가사 절정부에는 '맘마미아'가 반복해 들어간다. '보헤미안 랍소디'는 그해 9주간 영국차트 1위를 기록하고 '맘마미아'에게 1위를 넘겨주었다. 영화 <맘마미아>는 아빠와 딸을, <보헤미안 랍소디>는 부장과 대리를 한자리에 불러들였다. 40년을 뛰어 넘는 세대가 이들 동갑내기 곡에 열광하는 것은 순수한 즐거움과 열정에 대한 환호이다. 멋진 음악이 있는 한 40년 후에도 이런 즐거움이 또 생길 것이다. 지나간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헌사로 퀸의 '라디오 가가'의 마지막 가사를 바친다.

"아직도 누군가 널 사랑해(someone still love you)"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센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목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 이토록 맛있는 고등어 요리

가을은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등어가 제철이다.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DHA가 풍부한 고등어는 어린이, 수험생, 고령자 등 모두에게 좋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고등어를 활용한 가을 별미를 만나보자.

사진 백가령(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히우스)



## 고등어 오븐구이

### 재료(2인 기준)

생 고등어(중) 2마리, 소금·후춧가루 약간, 식용유

**고등어 전처리 재료** 쌀뜨물, 청주 3T, 생강즙 2T

### 만들기

- ① 생 고등어는 내장을 제거한다.
- ② 1차 전처리로 쌀뜨물에 담가 비린내를 제거한다.
- ③ 2차 전처리로 청주에 생강즙을 섞어 고등어에 발라 남은 비린내를 제거한다.
- ④ 비린내를 제거한 고등어의 물기를 없앤 후 등 양쪽에 X자 모양 칼집을 2~3곳 내고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해 둔다.
- 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20~30분간 굽는다.

## 데리야키 고등어와 채소구이

### 재료(2인 기준)

고등어 순살 6장, 단호박(대) 1/2통, 미니당근 5개, 방울양배추 6개, 그린빈스 6개, 소금·후춧가루 약간, 식용유, 올리브오일

**고등어 전처리 재료** 쌀뜨물, 청주 3T, 생강즙 2T

**데리야키 소스 재료** 간장 1C, 물 1C, 맛술 1/2C, 청주 1/4C, 올리고당 2T, 물엿 2T, 통후추 10알, 대파 1대, 생강 2쪽, 간 마늘 5개, 레몬 1/2개

### 만들기

- ① 분량의 데리야키 소스 재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 중약불로 줄여 서서히 졸인 후 체에 거른다.
- ② 고등어 순살을 씻어 1차 전처리로 쌀뜨물에 담가 비린내를 제거한다. 2차 전처리로 청주에 생강즙을 섞어 발라 남아 있는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한다.
- ③ 고등어 등 부분에 X자 모양으로 2~3군데 칼집을 낸 후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10분 정도 둔다.
- ④ 단호박은 큼직하게 썰고, 미니당근은 당근 모양으로 다듬고, 방울양배추는 절반 크기로 자르고, 그린빈스는 양쪽 끝을 다듬은 후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전부 넣어 소금, 후춧가루로 간하면서 노릇하게 굽는다.





경상북도 경주 여행

##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우리는 '경주'를 노천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도시 곳곳에 세월과 역사를 짐작할 만한 문화재가 산재한 덕분이다. 여기에 '수학여행'이라는 학창시절의 낭만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황홀한 여행지인가.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경주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장대한 능을 불쑥 만난다. 도시는 점점이 꼭 찬 찬란한 문화재의 보고이다.



경주 시내권은 까만 밤에 찾아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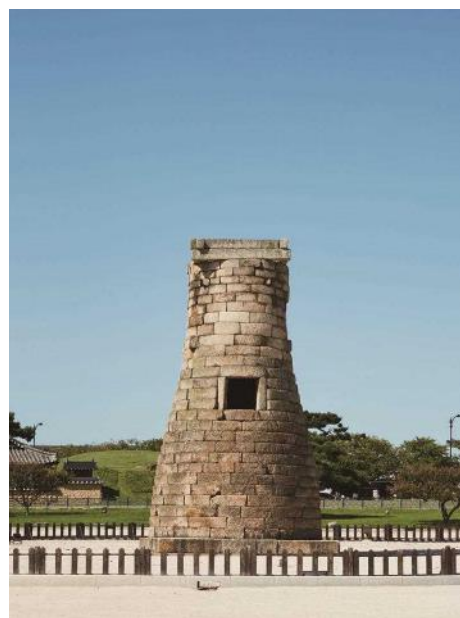
#### 해맑던 어린 시절로 시간여행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여전히 신라가 살아 숨 쉰다.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며 무수한 세월이 지나 현대에 이르렀지만 경주는 여전히 다르다. 경주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장대한 능을 볼 수 만나고, 길을 걷다가도 위엄 있는 돌상과 마주한다. 이렇게 도시는 점점이 꼭 찬 찬란한 문화재의 보고다. 경주를 제대로 알려면 '한 달'은 잡아야 할 것이다. '수학여행=경주'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수학여행이라면 으레 경주를 떠올릴 만큼 학창 시절 누구나 경주에 다녀왔을 테지만, 그렇게 대부분 불국사, 첨성대는 둘러봤을 테지만 우리가 그때 본 것은 허상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신라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곳이 마음먹고 천천히 돌아보자. 따분했던 경주의 기억은 어느 틈에 낭만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 긴 세월 묵묵히 한자리에서

'이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이다. 화강석을 가공하여 조성한 기단 위에 27단의 석단을 원통형의 곡선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장대석을 우물정자형으로 축조하여 정상부에서 천문을 살피도록 시설되어 있다'

이토록 자세히 읽어본 적 있던가. 첨성대를 소개하는 글이 새삼스럽다. 경주는 크게 경주 시내권,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 남산권, 서악권, 북부문화권, 동해권으로 볼거리가 나뉜다. 이 중 신라를 가까이 느껴보려면 첨성대, 천마총과 대릉원 일원, 계림, 교촌마을, 동궁과월지 등이 자리한 시내권을 걸어보자. 잘 정비된 산책로를 걷다보면 상상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수한 세월 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문화재 덕에 잊은 줄 알았던 학창 시절 기억이 성큼 가까워진다. 문화재가 서 있는 위치와 생김새는 변함없지만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조금씩 달라졌다. 몇 해 전부터 가을의 첨성대는 분홍빛이다. 첨성대 꽃단지 일원에 핑크몰리 군락을 조성해 인생사진 남기기 좋은 명소로 꼽힌다. 경주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월정교도 경주를 찾는 청춘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다. 월정교는 통일신라시대 때 다리인데 조선시대에 유실된 것을 고증을 거쳐 2018년 4월에 복원했다. 경주 시내권은 까만 밤에 찾아도 좋다.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만나게 되지만 어둠은 적당히 문명



최근 복원한 월정교는 경주를 찾는 청춘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천마총의 돌무지덧널무덤에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

의 흔적을 가려주는 동시에 오감을 연다. 저녁이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에 화려한 조명이 켜져 낮에 본 것과는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경주의 밤을 제대로 즐기려면 마음에 불을 켜고 가볍게 돌아보면 좋다.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의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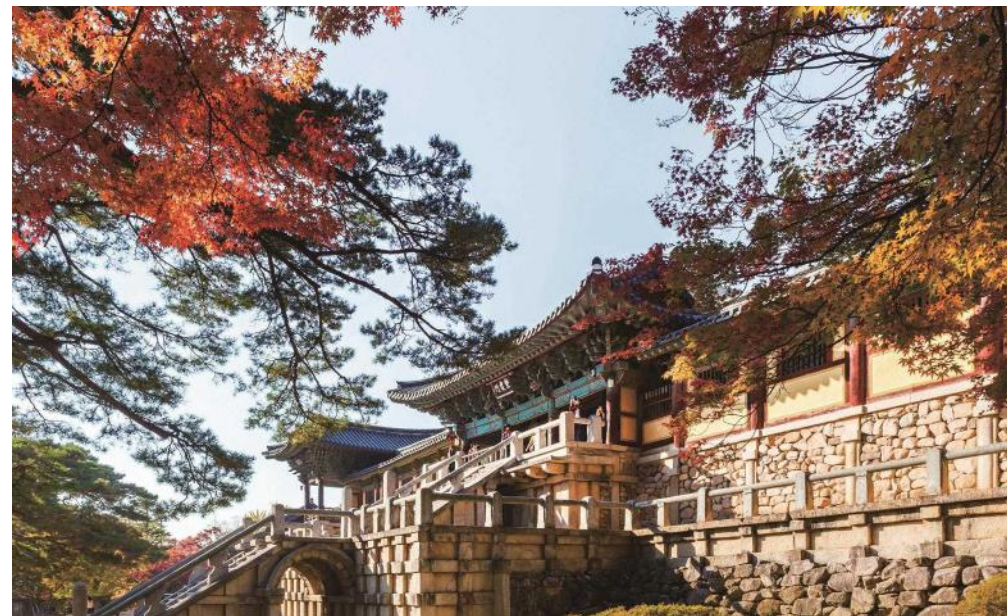
어릴 적 지루하게만 여기던 박물관은 어른이 되어서는 웬만한 여행지에서 반드시 들르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여행지의 역사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두고 쉽고 친절하게 전하는 가이드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경주에서는 신라문화의 절정을 담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꼭 들러봐야 한다. 천마총 금관, 토우장식긴목항아리 같은 국보와 경주 영묘사터에서 발굴돼 신라인의 대표 얼굴이 된 얼굴무늬수막새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박물관 뜰 오른쪽의 종각에 매달려 있는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이다. 박물관 뜰은 야외 박물관으로 통하는데, 경주 곳곳에서 가져온 석탑, 석불, 석등, 비석받침 등 불교 관련 석조 유물이 모두 여기에 있다.

### 오래된 기억, 새로운 경주

옛 황족들이 살았다는 경주 황남동은 '황리단길'로 불리는, 소위 뜨는 관광지다. 옛기와집은 그대로 살린 채 내부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상점과 카페가 좁은 골목골목 들어서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교복대여점에서 교복을 빌려 입고 수학여행의 낭만을 재현하며 기념사진 한 컷 남기기 좋은 풍경이다.

보문관광단지에는 경주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다. 보문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호텔, 골프장, 경주월드, 미술관 등이 들어서 있다. 단정하게 정비된 보문호수 주변은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에 좋다. 봄에는 흐드러진 벚꽃, 가을에는 오색빛깔 단풍이 특히 아름답다.

경주여행, 그리고 수학여행에서 빠지지 않던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수학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장쯤 가지고 있을 법한 사진, 바로 불국사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이다. 옛 기억을 더듬어 불국사의 단아한 석가탑과 화려한 다보탑 앞이나 백운교와 청운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이번 경주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고한 유적지와 단풍이 어우러진 불국사의 고즈넉한 가을 정취는 올가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수로 남는다. 옛 추억의 향수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경주로 향하자.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추억이 깨어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성이 섬세하게 반응할 것이다.



불국사의 가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문화의 절정을 담고 있다. 경주 황남동은 일명 '황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상점과 카페들이 좁은 골목골목 들어서 있다.



인하대병원 장기 기증자 추모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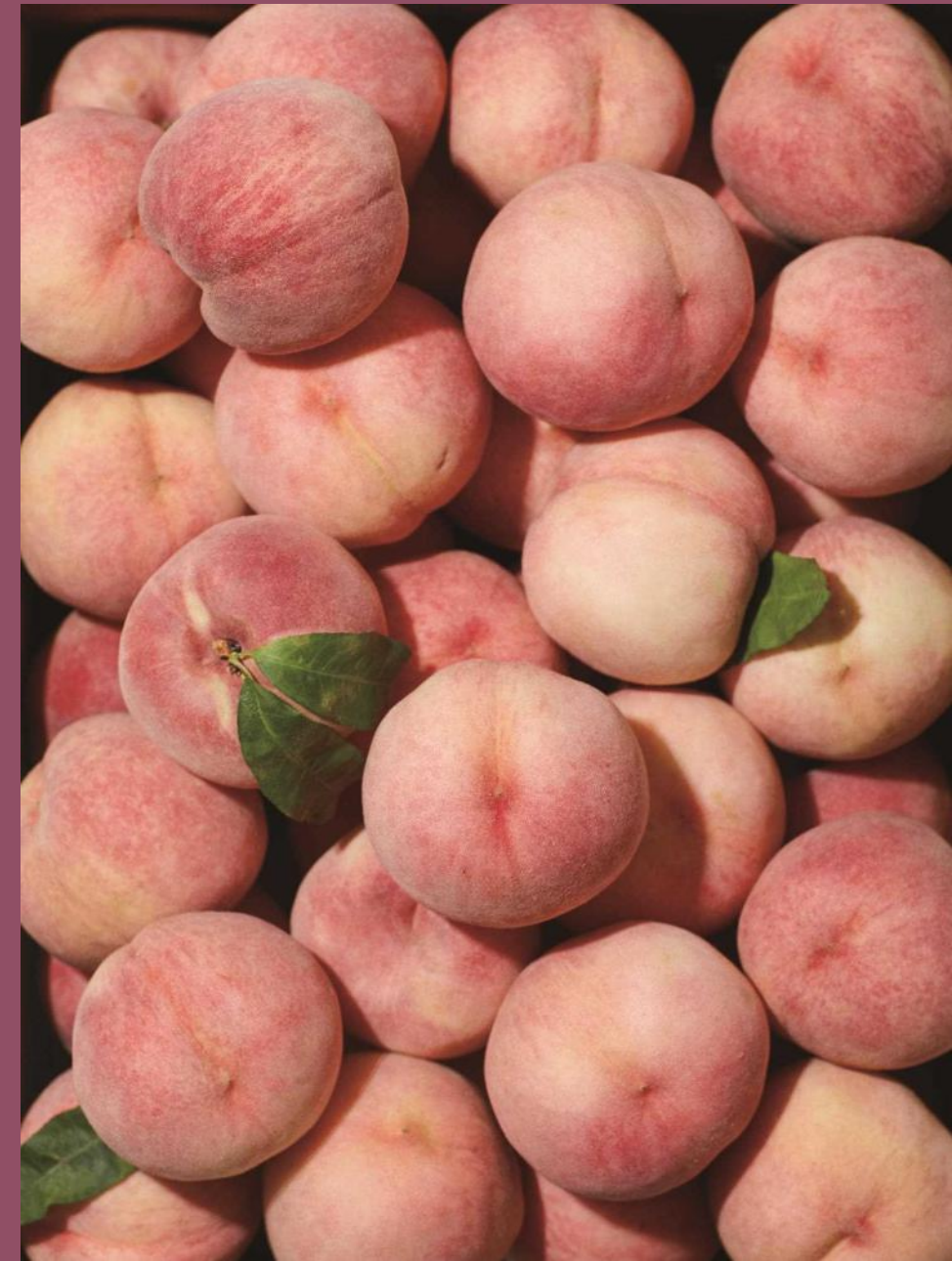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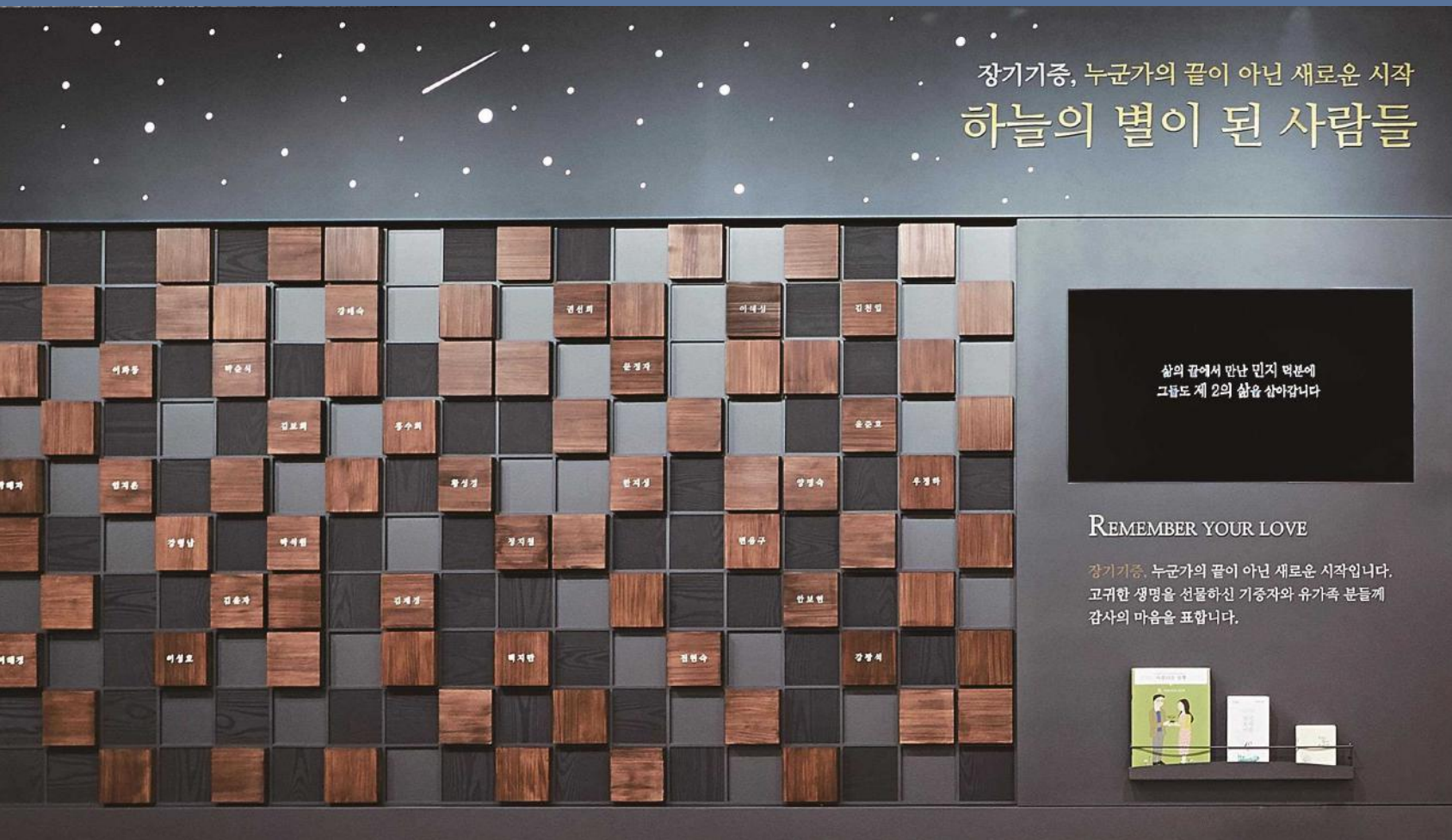
# 송고한 이름을 아로새긴 아름다운 공간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아름다운 끝이자,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기기증 없이는 장기이식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식이 활성화된 병원은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기증을 선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하대병원은 6월 10일, '인하대병원 장기 기증자 추모현판'을 완공했습니다. 인하대병원 본관 2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 바로 마주하는 이 송고한 벽은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감사를 작게나마 전하고 싶었던 인하대병원의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2019년 3월, 여러 부서와 논의를 시작해 수차례 회의 끝에 탄생한 이 추모 현판에는 2013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하대병원에서 장기를 기증한 총 35명(2019년 8월 기준)의 이름을 아로새겼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결단한 '장기기증'이라는 송고한 선택은 148명의 이식 대기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송고한 사랑을 실천한 장기 기증자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과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 풍성한 수확의 기쁨

가을건이가 한창입니다. 농부들은 불볕더위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키웠을 테죠. 길고 고단했던 과정을 지나 공들여 얻은 열매가 달콤하네요. 탐스러운 과일이 지천에 널린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아 그동안 거둔 것은 무엇인지 찬찬이 곰씹어봅니다.

혹여 뚜렷하게 얻은 열매가 없다고 해도 상심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에게도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주어질 테고, 매일 주어지는 하루 안에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가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 이곳에서 의료 한류 꽃 피우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부쩍 늘었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아왔지만 환경은 낯설고, 의사소통은 어렵기 마련이다. 팀 이름에서 대강 짐작했겠지만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은 외국인 환자가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에 선정되다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은 2009년 국제진료센터가 개소하면서 생겼다. 국제협력팀은 주로 외국인 환자유치와 해외 진출 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국제협력팀에서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 중국, 미국 포함 영어권 국가 등이다.

국제협력팀은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돕는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한국에 오기 전 챙겨야 하는 진료의뢰서부터 한국에서 진료를 보는 동안 필요한 통역 업무, 생활에서 필요한 컨시어지 서비스, 진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관리까지 전 과정, 즉 메디컬 서비스 & 논 메디컬 서비스(Medical Service & Non Medical Service)의 전반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국내를 포함한 해외 현지 박람회, 협력기관과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인하대병원의 브랜드를 각국에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현지 병원이나 협력 파트너를 통해 인하대병원의 우수한 병원시스템을 수출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국제협력팀은 2017년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KAHF)에 지정됐다.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된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내 병원 중 네 곳만 지정되었는데, 그중 한 곳이 인하대병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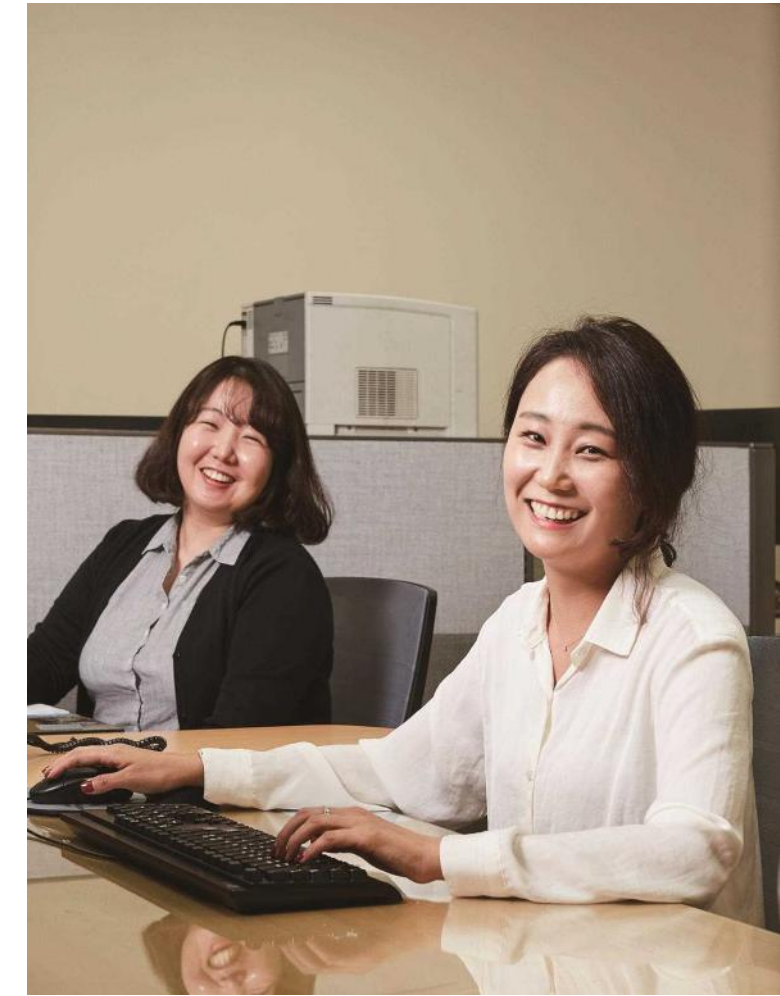
국제협력팀 인원은 총 9명. 오장열 팀장을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박관재 사원, 러시아 의료코디네이터 3명, 중국 의료코디네이터 2명, 영어 의료코디네이터 2명으로 구성된다.

## 중국 의료코디네이터,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국제협력팀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는 복경 중의대를 졸업한 권나연·임화영 사원이다. 권나연 의료코디네이터는 2013년부터 인하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중국 환자유치, 의료 통역, 현지병원 협력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의료코디네이터로서 권나연 사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두 가지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의료진과 환자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 통역은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또 한국 의료문화가 처음이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는 작은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환자 또는 보호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한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워 포기한 환자가 인하대병원에서 치



료가 잘 돼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는 인하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인하대병원에 오면 최고의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 곁에서 늘 함께하는 국제협력팀이 있으니 안심하고 내원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료는 물론 비진료 부분까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임화영 의료코디네이터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평가가 병원 인지도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일까. 병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귀국한 환자들이 감사하다고 연락해줄 때, 그들의 소개를 받은 지인이 병원을 찾아올 때 만족감이 높다. 특히 올 2월,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이진욱 교수님께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중국에서 10년 정도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다 지인 소개로 인하대병원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첫 외래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질환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이진욱 교수님의 진료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후 입원한 18병동 간호사들의 친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일

칭찬하셨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신 후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 의료에 대해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환자께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영어 의료코디네이터, 소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어권 국가 의료코디네이터는 최지연 사원과 이유진 대리가 담당한다. 국제진료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이유진 의료코디네이터는 인하대병원에서 일한 지 4년 차다. 그는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와 가족이 사소한 문제도 어려워하지 않고, 원활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돕는다. 그는 환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는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눈빛의 ‘Thank you’ 인사를 들었을 때, ‘BYE’라고 말하며 불현듯 ‘Hug’를 해주실 때 환자의 진심이 느껴지고, 또 인하대병원 의료에 대한 만족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국제협력팀에서 일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협력팀은 여느 행정부서와는 확연히 다른 업무 특수성을 지녔습니다. 내부적으로 병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싶습니다.”

한편 최지연 의료코디네이터는 올해 3월에 인하대병원의 일원이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RM)로 호주 국립병원 신생아중환자실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행정 업무, 외국인 환자 간호 관련 업무, 병동 및 외래 통역 지원 등 업무를 한다. 업무를 할 때 그는 ‘소통’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제가 외국에 살 때를 생각해보

면 외국인 환자들의 마음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불편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환자들이 느끼는 소통의 불편함에 공감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도우려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러시아 의료코디네이터, 24시간 365일 대기 상태**

러시아 의료코디네이터는 김보미·나탈리아·제이네 총 3명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CIS 환자 문의 답변, 진료 및 검사 예약, 진료확인서 및 초청장 발부, 숙소와 픽업 예약 및 진행, 모든 진료, 검사, 회진 시 동행 통역, 현지 에이전시 관리, SNS를 통한 병원 홍보, 병원 기사 번역 등 업무를 도맡는다.

김보미 의료코디네이터는 현지에서 수술을 비롯해 모든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인하대병원에 방문해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웃으며 돌아가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입사 후 첫 담당 환자였는데, 말기 위암 진단으로 현지에서 치료를 거부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인하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종양으로 위가 막혀 식사를 할 수 없고 거동도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육안으로도 보이고 심지어 만져지기까지 하는 상태로, 무리한 항암치료를 하면 타국에서 사망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보호자가 거부해서 큰 위험을 안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항암제에 반응이 좋아 우리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누워서 왔다가 뛰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웃으면서 집에 갈 때의 환자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마음이 아프다.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인



하대병원에 방문한 장기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연장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자께 남은 시간을 알려줄 때 등이다.

김보미 의료코디네이터는 인하대병원을 찾는 러시아와 CIS 국가의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수술 후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도 참는 환자가 있습니다. 국제협력팀 의료코디네이터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24시간 365일 온 콜(on call), 즉 대기 상태입니다. 의료코디네이터가 필요할 때는 참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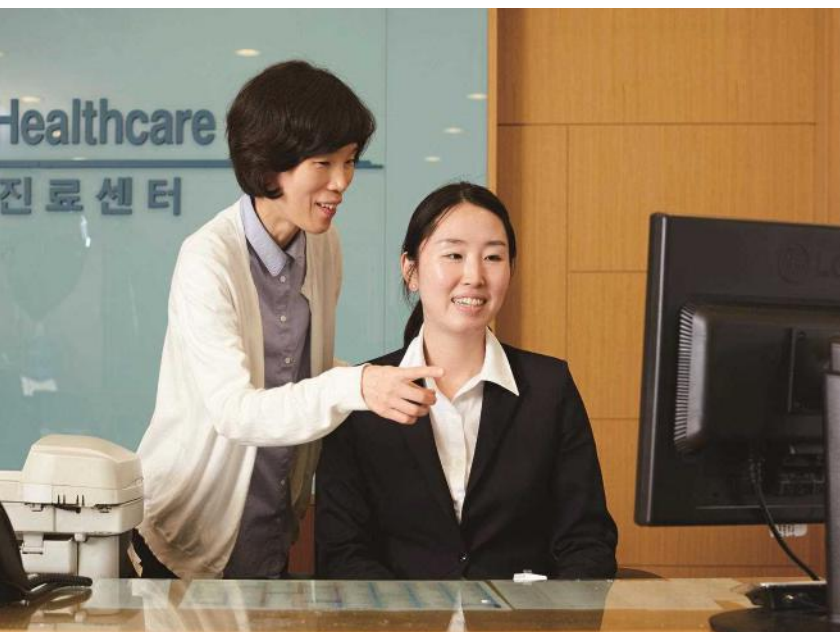
국제협력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과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으로 나뉘는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박관재 사원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UN에서 권고하는 개발 전략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유·무상 원조사업이다. 업무를 진행할 박관재 사원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업 대상지, 대상기관이 해외기관인 만큼 상대방과 신뢰가 깨지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의 가장 기본은 기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 회신 기한, 자료 송신·회신 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

우 기본적인 일이지만 의외로 가볍게 생각해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신뢰를 쌓아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 업무에 기울이는 노력도 상당하다. 박관재 사원은 업무를 발전시켜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해 관련 학술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고, 향후 관련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세계를 상대로 꿈을 꾸다. “국제협력팀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해외 고객을 유치하고, 우리 시스템을 해외에 진출시켜 인하대병원과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협력팀 오장열 팀장은 외국인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인하대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국제협력팀은 병원의 미래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병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해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 팀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병원과 부서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개인의 행복이 병행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하대병원이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병원이 되기 이전에 외국인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절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힐링캠프에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스포츠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들이 '희귀질환 극복 서포터즈'로 참여해 희귀질환 환우와 함께했다.

**희귀질환 환우 맞춤 프로그램**

힐링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I-CARD(영국에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는 의사소통 여권)를 만들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희귀질환 환우와 희귀질환 극복 서포터즈가 한 조가 되어 자기소개, 조 이름 발표를 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패브릭 마커를 이용한 예코백 만들기, 보드 게임 등으로 환우와 서포터즈의 친밀감과 성취감을 높였다. 점심식사는 비만 및 2형 당뇨 등을 동반한 환우들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치료 도시락을 제공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잠시 휴식을 한 뒤 인하대학교 스포츠학과 학부생 및 박사 과정생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한 체육활동 시간이 이어졌다. 희귀질환 환우들의 승부욕과 집중력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서로를 통해 힐링하다**

몸이 불편한 환우와 함께하는 캠프를 계획할 때 '다치지는 않을지',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 자해를 하지는 않을지' 등 많은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종일관 밝고 건강한 환우들과 하루를 같이 지내는 동안 이들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흔히 희귀질환을 '얼룩말'에 비유한다. 얼룩말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학계에서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동물이다.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말'이 아니라 '얼룩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돼, 희귀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캠프에 참석한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 장이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몸과 마음이 점점 치져가는 희귀유전질환 환우와 가족에게 뜻 깊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다. 늘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보내는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환우와 가족에게 힐링을 선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행사를 진행한 주최 측 역시 그들 덕분에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와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다

지난 6월 22일, 질병관리본부 지정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는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와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지친 환우와 가족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글 조정임(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 간호사)

**희귀유전질환 프레더-윌리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장완 근위부(15q11-13)에 결손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상하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출생아 1만~1만 5천 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한다. 연령 및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생아기와 영아기에는 근긴장성 감소, 수유 곤란, 발달 지연 등이 나타난다. 아동기부터 식욕 증가와 함께 과도한 양의 음식 섭취, 공격적인 행동, 분노 발작, 발달 및 지능 장애를 보인다. 성인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및 시상하부 기능부전으로 인한 골다공증,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부전, 저신장 등이 나타난다.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

2019년 2월, 질병관리본부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희귀질환자의 '진단방랑'을 막기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를 선정했는데, 인하대병원이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로 지정됐다. 권역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 진료실(클리닉)운영,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에서는 환자와 가족 대상의 자조모임, 캠프 등을 계획했다. 이 일환으로 '제1회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 및 가족을 위한 일일 힐링 캠프'(이하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프레더-윌리 증후군 환우들은 강박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뜯어 상처를 만들기도 해서, 상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 해외 학회부터 대학병원, 개인의원까지 미국에서 보낸 뜻깊은 14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2주 동안 해외 학회부터 대학병원, 개인의원까지 모두 돌아보았다. 2주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어느 때보다 뜻깊고 알차고, 풍요로웠다. 이 시간의 경험은 곧 자부심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큰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글 김성훈(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3년 차)

전공의를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수련 중 해외에서 발표 한 번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교수님께서 "해외 학회에서 발표한 뒤, 최정석 교수님 계신 듀크대 대학병원에 연수를 다녀오면 어떻겠니?"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있던 작은 불씨는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주간의 단기연수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듀크대병원 담당자와 수차례 메일과 서류를 주고받은 끝에 방문 승인을 받고,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인의 이비인후과의원에도 들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니 순식간에 진행돼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해외 학회

김영호 교수님과 함께 참석한 학회는 AsMA(Aerospace Medical Association)로 일반 항공부터 우주의학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90번째 정규 모임으로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학회는 처음 참가했는데, 널찍한 학회장에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며 연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학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 시간에서는 당시 항공공의관이었던 윌리엄 카르펜티에르(William Carpentier)가 전하는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학생, 전공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는 항공우주의학 전공의 과정이 있고, 이곳에 모인 학생과 전공의들은 항공우주 의학 전공하여 우주비행사 또는 항공공의관이 되려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이 부러운 한편, 꿈을 향한 그들의 열정에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김영호 교수님이 'Effects of chronic hypergravity on allergic animal model' 연구를 포스터 발표했으며, 우리 연구가 큰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 화목하고 느긋한 대학병원 수술실

발표 후 곧장 미국 반대편으로 향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더럼(Durham)에 위치한 듀크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938병상 규모로 Top U.S. Hospital에 선정되기도 한 병원입니다. 저는 비과(Rhinology) 파트와 소아 이비인후과(Pediatric ENT) 파트에서 연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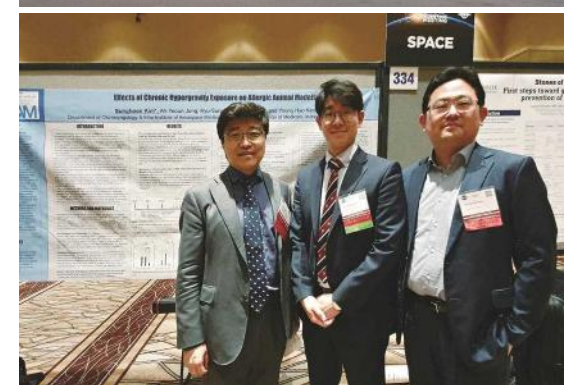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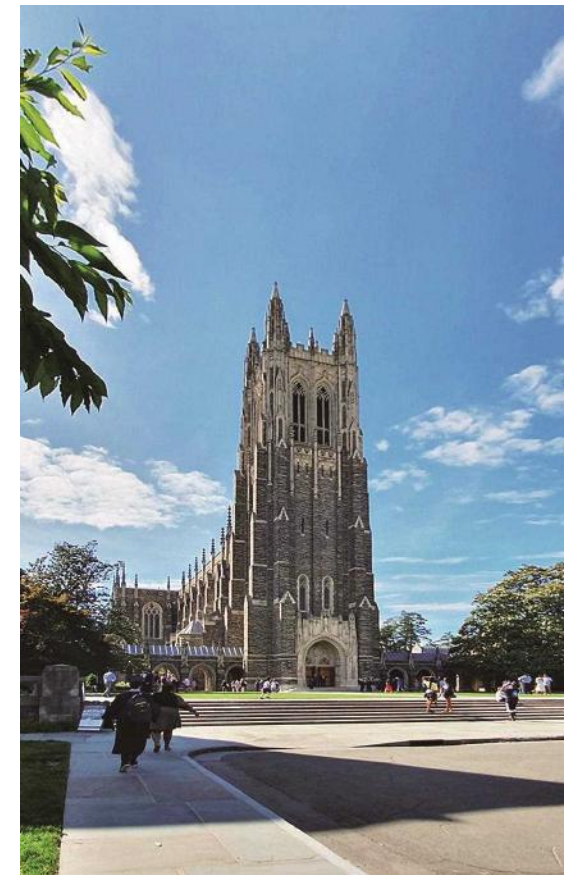
하루 업무는 통원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환자 대부분이 수술 후 당일 퇴원하기 때문에 통원 수술용 침대가 70개에 달했습니다. 리스펙(Respect), 팀워크(Team work), 오너십(Ownership)를 강조하는 수술실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루에 코 수술이 3건밖에 없어 화목한 분위기에서 느긋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레지던트가 집도하고 교수님들은 한 발짝 뒤에서 꼼꼼하게 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차가 높지 않은 레지던트도 여러 수술을 곧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수술실 안팎에서 수많은 장비를 보았습니다. 최근 우리 인하대병원도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기업을 토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로봇 다빈치(da Vinci) Xi를 듀크대학병원에서는 흔한 기타 장비들처럼 복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 기법이나 실력은 우리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료진을 도와주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많은 첨단 장비들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진료

버지니아(Virginia)주, Otolaryngology associates P.C. 라는 곳에서 로컬을 경험했습니다. 이 연합에 약 30명의 의사가 속해 있고, 지역 대형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의사들에게 수술실과 입원실을 제공하고, 의사들은 병원에서 당직을 섭니다. 대형병원에서 2주에 1회 열리는 tumor board에 참여했는데, skin cancer, scalp cancer 등 흔치 않은 증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정부 스텝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런 시스템이 부러웠습니다. 외래에서는 10분당 1명 정도 진료를 보았는데, 따로 기록원이 있어 진료 중에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들이었고, 국내 수련 프로그램이 미국 유명대학 프로그램과 견줘도 손색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어느 때보다 뜻깊은 2주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진 다양한 기회와 장비, 시스템이 부러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받고 있는 트레이닝도 큰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를 전적으로 지원해주신 교수님,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⑤

# 이명

이명은 외부에서 실제로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머리카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이다. 이명은 원인에 따라 처방하는 약이 다르므로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명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보자. 글 Ref. KIMS online, 약학정보원

**최근 들어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이명인가요? 이명은 어떤 질환인가요?**

이명은 외부에서 실제로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머리카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명 자체는 질병이라기보다 증상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이명은 노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청력 장애, 일부 약제의 부작용, 유전적(선천적) 청력 장애의 부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인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명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증상이 개선되나요?**

이명을 치료할 때는 다양한 약물요법이 시도되지만 이명의 원인에 따라 처방하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명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다르고, 투여 시점에 따라서도 반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빈혈, 감상선기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기저 질환에 따른 이명은 이들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하며, 이경화증을 동반한 이명은 불소나트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명 치료에는 어떤 종류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나요?**

- 1) **신경안정제, 진정제, 항우울제** 이 계열의 약물은 이명의 악순환 즉,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이나 짜증 등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취침 전 소량을 복용하면 수면 촉진 효과와 함께 이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2) **니아신** 니아신은 수년간 이명 치료에 사용했는데, 평균근 이완 및 내이로 공급되는 혈관의 혈류를 증가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3) **은행잎 추출물 제제** 은행잎 추출물 제제는 동맥 확장, 혈관 탄력성 개선 및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으며 말초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현기증과 두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력 개선 효과와 함께 이명 증상 감소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치료 효과가 투약 12주 정도 후부터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주치의와 상의 하에 증상을 관찰하며 투여해야 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항동7가	유한은누리약국	032-883-2600
주안동	라성약국	032-831-6065	연수동	연수태평양약국	032-818-7010	운서동	영종태평양약국	032-746-1313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옥련동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동의당약국	032-834-8274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구월4동	연세프리지약국	032-462-0392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용종동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부평6동	행복한온누리약국	032-503-9339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가좌동	옵티마부평성모	032-505-2035
	보명약국	032-762-3347	작전1동	유원약국	032-551-5650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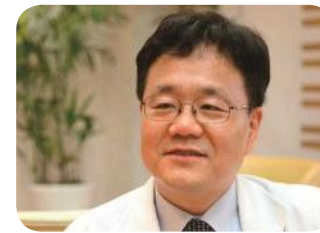
2019. 6. 11  
인터뷰 : **외과 허민희 교수**  
언론사 : 동아일보  
주 제 : 고령의 유방암 환자도 생존율 높일 수 있다



2019. 6. 12  
기고자 :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 중앙일보  
주 제 : 비용 크게 늘어날 고령자의료비, 미리 대처할 방법 없을까



2019. 6. 14  
인터뷰 : **이비인후과 김영효 교수**  
언론사 : 동아사이언스  
주 제 : '우주의학'이 뜬다



2019. 6. 26  
기고자 :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  
언론사 : 인천일보  
주 제 : [스펙트럼 인] 6.25전쟁 69주년, 그리고 레바논 동맹부대



2019. 6. 28  
기고자 : **정형외과 권대규 교수**  
언론사 : 헬스조선  
주 제 : [의학 칼럼] 아이 흰 다리, 치료가 필요한 때는...



2019. 7. 2  
인터뷰 : **입원외과 김정수 교수**  
언론사 : 청년의사  
주 제 : 입원환자 골든타임 사수하는 인하대병원 신속대응팀



2019. 7. 5  
기고자 :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  
언론사 : 헬스조선  
주 제 : 과학하지 않은 적당한 음주는 우울감 '해소' 약



2019. 7. 8  
기고자 : **정형외과 이동주 교수**  
언론사 : 중앙일보  
주 제 : [건강한 가족] 손목이 자주 저릿저릿? 손목터널증후군 왔네요



2019. 7. 10  
인터뷰 : **감염내과 백지현 교수**  
언론사 : MBC  
주 제 : "걸리면 50% 사망"... 휴가철 방역당국이 떨고 있다



2019. 7. 10  
기고자 : **심장내과 박상돈 교수**  
언론사 : 경인일보  
주 제 : [가슴 쥐어짜는 듯한 '협심증'] 심장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통증이 괴롭힌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인하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 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 이후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4곳의 의료기관(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을 추가 지정해 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된 인하대병원은 올 하반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해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경기권역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선정**  
 인하대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천-경기권역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하대병원은 올해 7월부터 약 4년간 ‘인하 B2B2C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더불어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을 비롯해 임상, 연구자(Ph.D)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기기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 개소**  
 인하대병원이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했다. 인하대병원 인천 관내 경찰의 트라우마 등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센터를 구축했다. 개소식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이상로 청장과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장 김원형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음동행센터에서는 인천 관내 현직 경찰관, 검사관, 의무경찰 등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나 수면 등에 대한 일반심리 상담과 업무 중 발생하는 외상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긴급심리 지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최초로 최신헌 심방세동 치료 냉각도자 절제술 기기(cryoballoon ablation) 도입**  
 인하대병원은 심방세동 환자 치료의 대표적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최신 냉각도자 절제술(cryoballoon ablation) 장비를 인천 최초로 도입했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특히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부각되는 냉각도자 절제술은 주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좌심방 내의 폐정맥 초입부에 가느다란 관을 밀어 넣은 뒤 풍선을 삽입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상 부위를 영하 75℃로 얼리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시술로, 풍선 냉각도자 절제술이라고도 부른다. 시술시간과 환자의 회복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부정맥 팀(김대혁 과장, 백용수 교수)은 심방세동 냉각도자 절제술을 인천 최초로 시행했다.



**중국 임기시 인민병원과 뇌종양 환자 ‘원격 다학제 화상 협진’ 진행**  
 인하대병원 뇌종양 다학제 팀 의료진이 중국 산둥성 임기시 인민병원 현지 의료진 10여 명과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종양 환자에 대한 다학제 논의를 진행했다.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MRI 등 각종 검사 기록을 확인한 후 치료 과정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다학제 진료관 여러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모여 한 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환자로서는 최적의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 과정이다. 국내에서도 다학제 협진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 의료진과 화상으로 다학제 협의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대한항공과 함께 레바논 청각장애 아동에게 희망 선물**  
 인하대병원이 레바논 티레지역의 청각장애 아동을 국내로 초청해 치료를 진행했다. 레바논 티레지역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내전 이후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한국 동명부대가 파병되어 유엔평화유지군(PKO)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치료는 인하대병원과 주(駐) 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동명부대, 대한항공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지에서 소외계층 의료지원 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의료봉사활동 중 어린이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치료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성사되었다. 환자들은 평상시 작은 소리에 반응이 없는 청력 저하 상태를 보였으나 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평소 여행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한국 1일 관광을 준비했다.



**SK와이번스 야구단과 ‘행복드림’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  
 인하대병원은 인천 행복드림구장에서 SK와이번스 야구단과 ‘행복드림’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SK와이번스 투수 박중훈 선수가 참가했다. ‘행복드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인하대병원과 SK와이번스가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하대병원과 SK와이번스 구단이 함께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시즌에는 작년에 이어 SK와이번스 투수 박중훈 선수가 ‘행복드림’ 프로그램을 인하대병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규시즌 동안 기록하는 승리 수만큼 마련된 공동기금은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한다. 1승당 박중훈 선수가 50만원, 인하대병원에서 50만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Norfolk State University(NSU)와 우주항공의학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인하대병원이 Norfolk State University(NSU, 이하 ‘노퍽대학’)과 우주항공의학 분야 연구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인하대병원에서 김영모 병원장, 노퍽대학 Dr. M stith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주항공의학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에서 우주항공의학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소한 인하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주항공의학센터(센터장 김규성)와 교육부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노퍽대학과의 향후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2019년도 제2차 국제의료봉사단 몽골에 파견**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레바논에 이어 몽골에 2019년도 제2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김명옥 교수를 필두로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몽골 바가노르 지역 바가노르 병원 의료진과 함께 보건 환경이 열악한 현지인을 위해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지원 활동에서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몽골 현지 의료진에게 강의를 진행하며 선진 의료기술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환경보건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나누리 캠프 마쳐**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공동으로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초등학생 26명과 부모 24명(총 19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나누리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알레르기질환 환경관리 강의, 알레르기질환 검사체험, 우리나라 잡자리 찾기,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북한산 둘레길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질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올해로 10번째인 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실시되었으며, 캠프 참여 후 재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참석자 전원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해외연수 2019.9.1~2020.2.29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혈액종양내과	신석환	위암, 위기질성종양
	하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소화기내과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해외연수 2019.9.1~2020.2.29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대장암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대장절제술, 치질 등 대장질환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병리과	김우철	대장암, 직장암, 폐암, 흉선종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소화기내과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병리과	김우철	폐암, 폐전이암, 흉선종, 사이버나이프
혈액종양내과	김루시아	폐병리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이진우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학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외과	허민희	유방암, 유방질환	
	이진우	유방양성질환, 유방내분비,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유방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산부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 종양, 자궁체부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한경희	자궁 및 난소종양치료, 부인암 생존자 상담	
부인암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임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비뇨의학과	이택	전립선암, 신장암, 복강경수술	
	강동혁	신장암, 신우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복강경수술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비뇨기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두경부암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위암, 식도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폐암, 혈액암	
피부암	김한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버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상, 두경부암, 두개 기저부 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상,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강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정형외과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근골격종양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병리과	주영채	연부조직 병리

■ 암통합정보교육 프로그램 사전신청 및 문의 (032) 890-1071, 1072

- 강의형 교육: 암 질환 및 치료 중심 강의, 주 1회 대상자 - 암 환자 및 가족, 내원객
- 참여형 교육: 노래치료, 웃음치료, 캘리그래피(손글씨), 미술치료 대상자 - 현재 치료중인 암 환자, 사전 신청 필수
- 건강공개강좌 - '위암의 날': 10월16일(수) 2시, 강당 '유 방 암': 10월31일(목) 2시, 강당

#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 인하대병원 모바일앱

# My인하

# OPEN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